

# 살아 있는 인물과 말들의 보고

연극배우 박철민씨가 뽑은 조정래의 《태백산맥》(전10권)

1980년대 '정치 성향의 문화집회'에 참가해본 사람이라면 집회의 사회를 맡곤 했던, '민주대머리 박철민'을 기억할 것이다. 극단 '현장'에 오래 몸담아온 박철민씨(37)는 당시 민중연극계에서는 스타나 다름없었다. 그는 최근 몇 년 사이 <밥> <기호 0번 대한민국 김철식> 등에 출연했고, 지난 1999년에는 최종원과 번갈아가며 열연했던 <품바>로 관객들의 인기를 한몸에 얻기도 했다. 또 <오봉산 불지르다>로 연극협회가 주는 연기상도 거머쥐었고, 요즘에는 MBC 마당놀이 <암행어사 줄도야>에서 1인 4역을 연기하느라 쉴 틈도 없다.

박씨가 서가에서 꺼내놓은 책은 조정래의 《태백산맥》(전10권)(한길사)이다. 그가 《태백산맥》을 처음 접한 것은 대학 때였다. 그에게 《태백산맥》은 당시 삶의 중심이었던 변혁운동과 '변혁의 무기'로서 연극 모두에 자양분이 돼줬다. 박씨는 《태백산맥》을 세번 읽었다. 한번은 벽찬 가슴으로 정독했고, 한번은 등장인물의 성격과 특성을 살펴려고 읽었고, 또 한번은 '아름다운' 전라도 사투리를 배워보려고 읽었다. 그는 곧잘 연극배우로서 자신을 하대치나 염상구에 빗댄다. 김범우나 염상진보다 그들이 훨씬 더 살아 있는 인물들이기 때문이다.

"염상구는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단순하지 않은 내면을 지닌 인물이지요. 시대가 만들어낸 약역이지만, 그런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고뇌를 그에게서 엿볼 수 있어요. 염상구가 형 염상진의 시체를 지켜낼 때는 정말 영영 울었어요."



"염상구는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단순하지 않은 내면을 지닌 인물이지요. 시대가 만들어낸 약역이지만, 그런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고뇌를 그에게서 엿볼 수 있어요."

그가 여태 연극에서 말아온 "까불대고, 연극에 양념을 뿌리고, 활력을 주는" 역할들이 하대치나 염상구에 많이 기대 있는 것도 그런 이유다. 그는 또 연극에서 자주 특유의 입담과 재치로 관객을 웃기고 울리는데, 그의 이런 입담 또한 《태백산맥》에 신세진 바 크다.

"포도시(겨우), 무담시(이유없이) 같은 말들은 표준어가 도저히 표현해낼 수 없는 걸 담아내죠. '지리산 호랑이가 확 썩었다가 더러워서 뱀을 놔'는 아주 잔인한 욕설인데도,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고향이 전라도여서도 그렇지만, 그의 말투에는 어느새 《태백산맥》의 등장인물 말투가 자연스럽게 묻어나온다. 그는 곧 연극배우 박광정이 창당한 극단 '파크'의 단원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온 '태백산맥'이 이번에는 또 어떻게 관객을 웃기고 울릴지 궁금하다. —김장근 기자

다름에서 디자인은 행복을 느낀다

## 2002 디자인의 새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시작은 언제나 새마음으로 하듯  
이제 더욱 새로워진 각오로 준비한 디자인의 리더,  
다름과 함께 즐거운 새해를 출발하십시오.

**인재를 찾습니다**

노련하고 의욕많은 기획자와  
불도저 정신의 신입 카피라이터를 찾고 있습니다.  
충원시까지 모집하며 접수는 이메일로만 받습니다.(외국어 능통자 우대).

dp design partner darum

**다름**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64-65 K&J빌딩(2F)  
TEL 02\_325\_6260\_1, FAX 02\_325\_0944, E-mail\_darumman@korea.com